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2~6/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꽃에 향기를 더하대(육조 해능, 천로 야부 금강경 해설)	원정스님/정안스님	조계종출판사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미네소타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	홍창성	불광출판사
3	나는 중이 아니야	진광스님	불교신문사	8	진리란 무엇인가?	혜담스님	민족사
4	사찰의 비밀(불교 상징과 문화에 대한 안내서)	자현스님	자현스님	9	청암사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의 좌충우돌 수행 이야기	청암사승가대학	민족사
5	정선 디가 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10	불교가 필요하다	김규칠	김영사

소를 통해 들여다 본 인간 본성 성찰



십우도

백금남 지음/무한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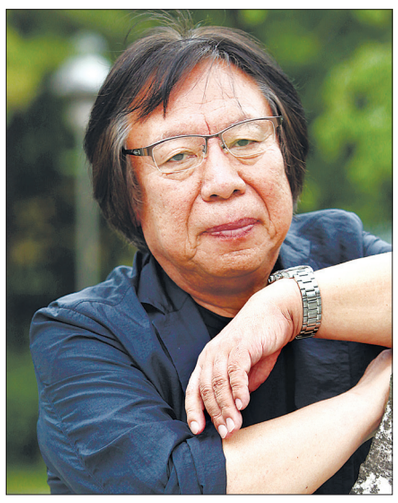
'한 개인의 정신적 발전 과정을 불교적 관점으로 추적한 역작이다' 〈이청준 선생〉
'갖춰진 소설로서의 틀과 문장력, 우선 재미있게 이끄는 힘이 있다' 〈정규웅 문학평론가〉
'무거운 주제를 택해 성실히 밀고 나가는 탁월한 역량이 엿보인다' 〈서정기 교수〉

출간되자마자 문단에서 찬사가 쏟아졌다. 소설가 백금남〈사진〉이 소를 통해 인간 본성을 들여다 본 신작 장편 〈십우도〉가 그 주인공이다. 이번 소설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본성을 어떻게 찾아와 이 세상에서 눈빛 좋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도살을 업으로 삼고 있는 백정의 삶은 눈물겹다. 하지만 그게 곧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 소설은 문학적으로 펼쳐 보여준다. 저자 백금남은 책 속에서 일제 강점기와 6.25라는 민족의 수난. 그 과정 속에서 지난히 살 수밖에 없었던 민초들의 삶 그 자체가 오늘 우리들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도임을 처절하고 지극하게 버무렸다. 백정의 일상사인 소의 도살과 그 수행의 길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일상 또한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소설은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소설 〈십우도〉는 한마디로 백정의 일상사인 소의 도살을 통해 깨달음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진여와 실상의 체득이 또한 지난한 것임을 쉽게 이야기로 풀어냈다. 김선학 교수(문학평론가)는 "그 이야기는 언어를 잘 꿰어 갈무리한 문체의 특성 및 백정의 한과 사무친 설움의 응어리를 불교적 사유와 순환의 구조 속에서 감동으로 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했다.

소를 통해 인간 본성을 내다본 이 소설은 2014년 대종상을 수상한 영화 〈관상〉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거대한 한 폭의 구도화와 같다.



십우도란?

1단계 심우 | 놓친 소를 찾아 나선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소의 자취를 찾아 헤맨다. 잃어버린 참 자아를 찾아 나섬을 상징한다.

2단계 견적 | 소를 찾아 실마리가 되는 발자국을 발견한 것은 깨달음의 서광이 비춤을 뜻한다.

3단계 견우 | 멀리서 야생의 사나운 소를 발견한다. 이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상징한다.

4단계 득우 | 정신을 집중해 소를 붙잡았으나 날뛰는 소를 뜻대로 다루지 못한다. 이는 득오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아직 더 닦아야 함을 상징한다.

5단계 목우 | 붙들었던 소를 길들이다. 이제 뜻대로 얻었으나 다시 잃지 않기 위해 수신해야 함을 상징한다.

6단계 기우귀가 | 길들인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집으로 돌아온다. 이는 참 자아가 자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님을 상징한다.

7단계 망우존인 |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세상은 그대로다. 대상 자체가 그대로 본래면목임을 상징한다.

8단계 인우구망 | 집에 돌아와 찾던 소와 찾은 나도 잊는다. 만물 일체가 공(空)임을 나타낸다.

9단계 반본환원 | 인간의 본성이 원래 청정한 것임을 나타낸다.

10단계 입전수수 | 이타행을 위해 다시 세속적으로 돌아옴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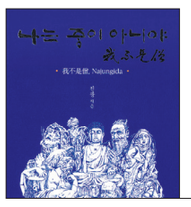
줄거리는 이렇다. 칼잡이 정산우는 어느 날 한 마리의 소를 잡다 놓쳐 버린다. 그는 소를 찾아 나서게 되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되돌아본다. 정산우의 고조부는 본시 백정 가문의 칼잡이 흰고무래다. 그는 흰고무래의 대를 잇기 위해 눈뜬 사람도 하기 힘든 백정짓을 눈먼 아들에게 대물림한다. 눈먼 백정 정풍정은 엄숙하고 장렬하게 백정으로서의 삶을 살다간다. 이후 그의 자손들은 세상의 괄시와 홀대를 온몸으로 받으며 정산우 대에 이른다. 자신이 놓친 소를 찾아 산으로 든 정산우는 눈물겨운 조상들의 지난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자성에 눈 떠간다. 자신이 잃어버린 소가 곧 자신의 본성이며, 그 본성을 찾기 위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도(道) 그러면 먼저 어렵다고 생각한다. 도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생활 자체가 도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 백금남 작가는 그 사실을 이 작품에서 여실히 보여준다. 저자는 이 작품에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도이기에 잡다한 생활을 떼놓고 도를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도 그러면 산중절간이나 중생계와 격리된 심신산골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생활선(生活禪)임을 설명하기 위해 한 마리의 소를 등장시켰다. 본질의 현현으로서 소의 등장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선불교에서는 인간 본성을 소에 비유해 왔다. 소를 곧 우리의 본성으로 본 것이다. 그 본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이 소설 〈십우도〉이다.

▲저자 백금남 작가는?

1985년 제15회 삼성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본격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1987년 KBS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신비한 상징과 목가적 서정으로 백정 집안의 기묘한 운명을 다룬 장편소설 〈십우도〉와 〈탄트라〉가 잇따라 히트하면서 90년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중 한 명이 되었다. 2003년에는 〈사자의 서를 쓴 티베트의 영혼 파드마삼바바〉로 민음사 제정 올해의 논픽션상을 수상했다. 2008년에는 일본의 화신(畵神)으로 불리는 도슈샤이 샤라쿠가 바로 한국의 김홍도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추적한 소설 〈샤라쿠 김홍도의 비밀〉을 발표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소설 〈관상〉은 영화와 함께 '관상 신드롬'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궁합〉 〈명당〉과 함께 역학 3부작으로 꼽힌다.

출가 후 만난 인연담과 행복 찬가



나는 중이 아니야

글 진광 스님/불교신문사 펴냄/1만 4천원



2010년 조계종 교육원서 소임을 맡은 이래 9년여를 행정승 혹은 일명 수도승(서울에 거주하는 스님)으로 지내온 교육부장 진광 스님〈사진〉이 자신의 수행 역정을 담은 책 〈나는 중이 아니야〉를 펴냈다. 진광 스님은 자신이 교육에 문외한인지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간난신고가 있었지만, 조계종서 스님들 교육하는 중책을 맡아 '실로 너무나 좋은 인연과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교육원 생활을 평했다.

이번에 펴낸 〈나는 중이 아니야〉는 2016년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위촉돼 4년여를 '천수천안'과 '수미산정' 코너에 실었던 칼럼들과 교계 및 일간지에 쓴 글들을 한데 묶은 것이다.

책 제목만 보면 엉뚱하고 다소 황당해 고개가 갸우뚱 거려진다. 이에 대해 저자 진광 스님은 "나는 다만 '중(僧)'이라는 명상(名相)에 빠져 휘둘리는 것과 선민의식 혹은 기필의식을 저어함이라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한다. 또한 진광 스님은 "금강경을 인용해 중은 곧 중이 아니니, 그 이름이 중인 까닭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본래 중인데 중이 아닌 것처럼 혹은 중도 소도 아닌 것 같은 아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머리에 뿔이 나고 가죽에 털이 나서 다른 종류 가운데 행하는 삶과 수행과 보살행으로 그리 살아갈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양구 깡촌 출신이라고 스스럼 없이 밝히는 진광 스님은 그야말로 별 볼일 없이 변방을 전전하며 헛된 꿈과 희망을 품은 일개 몽상가에 지나지 않았다고 자신을 술회한다. 하지만 진광 스님은 출가 후에는 오랜 시봉과 참선수행, 그리고 여행과 행정일 등 25년 동안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다. 그러면서도 책과 글쓰기만은 쉬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이번 책은 바로 그 결실의 결과물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광 스님은 책 속에서 젊은 날 숱한 불면과 감인대의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준 것은 어릴적부터의 오랜 습관인 일기와 편지, 그리고 독서와 여행 속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의 순간들이라며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책을 쓸 수 있었다고 술회한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란 주제의 1부는 신문에 기고한 각종 칼럼 모음이다. '향기는 멀리 갈수록 맑음 더욱 더하네' 주제의 2부 역시 언론사 기고문과 함께 원담 스님을 비롯해 설악 무산 스님 등 당대 존경했던 선지식들의 추모글이 실려 있다. 이어 3부 '세상속으로'에서는 성지순례 글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 · 글들 묶어
9년간 진행한 교육원 행사들도 소개

모음, 마지막 4부에서는 '조계종 학인 염불대회'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학인 토론대회' '학인 설법대회' 등 2014년부터 자신이 교육원서 맡아 시행한 각종 행사모음 글과 사진들을 넣었다.

진광 스님은 책의 서두에서 "이 책은 내가 교육원서 함께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든 인연과 사람들, 그리고 대작불사를 함께한 모든 이에게 바치는 찬가이자, 그 모든 것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이며, 나의 졸업 작품과 같다"고 출간 취지를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저자 진광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수덕사로 출가해 법장 스님을 은사로 하여 94년과 99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3년간 원담 노 스님을 시봉하다가 팔공산 은해사 기기암 선원을 시작으로 전국 제방서 20여 안거를 성만했다. 2010년부터는 조계종 교육원서 사무국장, 연수국장, 교육국장을 두루 역임 했으며, 현재는 교육부장으로 있다.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 · 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